



울산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자장겸사 황익수

전화 052-257-0300 / 팩스 052-228-4320

보 도 자 료

2018. 10. 11.(목)

자료문의 : 형사제1부장실

전화번호 : 052-228-4304

팩 스 : 052-228-4255

주책임자 : 형사1부장 위성국

제 목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2회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 개최 - 불법 포획 고래 유통 금지, 유통쿼터제 도입 등 개선안 제시 -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018. 10. 11(목) 울산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세미나는 지난 9. 13(목) 1회 세미나에서 지적된 고래 고기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고 고래 보호에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회 세미나에서는 ① 불법 포획 고래의 원천적 유통 금지, ② 고래 고기 이력제 시행, ③ 유통되는 고래의 DNA 채집 주체와 시기의 변경, ④ 고래 유통업자 등록제 시행, ⑤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 쿼터제 도입, ⑥ 그물에 걸린 고래 발견신고자 또는 구호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등 고래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고 불법 포획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 울산지방검찰청과 세미나에 참여한 유관기관은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개선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속 기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단체, 학계, 지역시민,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근절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I

제2회 세미나 개최 배경

- 1회 세미나에서 고래 유통 관련 현행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 노출
 - 2018. 9. 13.(목)에 개최된 1회 세미나에서, 수협이 업무 여건 미비로 고래 DNA 채집 및 제공이 미흡하고, 그로 인하여 2013.부터 2017.까지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63%(밍크고래의 경우 78%)만 고래연구센터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보존되어 있어, DNA 분석결과만으로는 압수 고래 고기의 불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집중 거론되는 등 고래 고기 유통과 관련된 현행 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필요
 - 고래 유통과 관련된 유관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회 세미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을 차단하고, 고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 제기

II

제2회 세미나 개요

- 공동 주최 : 울산지방검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 일시 장소
 - 2018. 10. 11.(목) 13:00~18:20,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
 - 참석자(약 100명)
 - (정부기관)해양수산부, 고래연구센터, 동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개발원,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시청, 울산남구청, (학계)울산대학교 고래연구소, (시민단체)핫핑크돌핀스, (유관기관)울산 수협,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 등
- ※ 구체적인 세미나 내용 및 일정은 별첨 참조 요망

III 고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 방안

● 고래 고기 유통 억제를 위한 개선안

- 불법 포획 고래의 유통 금지(현행법상 불법 포획 고래도 매각 절차를 거쳐 유통을 허용하고 있고, 다만 매각 대금은 국고 귀속됨)
- 처리확인서 발급 쿼터제 도입, 그물에 걸린 고래 발견 신고자나 고래 구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그물에 걸린 살아있는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 유통 구조 투명화를 위한 개선안

- 유통되는 고래 DNA 채집 주체나 시기 변경(현재는 해경이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수협이 DNA 시료를 채집하고 있어 시료 채집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경에 신고하는 즉시 시료를 채집하고, 채집기관도 해경으로 변경하는 방안)
- 고래 고기 이력제 도입(현행 한 마리당 1건이 발급되는 처리확인서로는 수백 조각으로 해체되어 유통되는 고래 고기를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수산물 이력제 방식 도입)

● 압수된 고래 고기의 신속한 DNA 감정을 위한 개선안

- DNA 감정 기관을 전문 법생물 감정기관 등으로 확대 검토 필요(현재는 고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센터는 원래 고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감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원과 예산상 제약이 많아,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수사 절차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고래연구센터의 DNA DB와 노하우 공유를 전제로 전문 법생물 감정기관 등으로 감정 기관 확대 검토 필요)

● 규벌력 강화 등 입법 정책적 개선안

- 고래 고기 DNA 시료 채집나 처리확인서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현재 관련 고시는 수협에 DNA 시료 채집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유통 고래 37%(밍크고래의 경우 22%)의 시료 채집이 누락되고 있고, 처리확인서에 의해 고래 고기를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 불법 포획업자의 어업권, 불법 유통 고래 취급 상인의 영업권 영구취소
-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 포획 고래 유통업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현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상 어려움이 있고,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 효과가 적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를 억제하지 못함)

IV 향후 계획

- 울산지검은 2회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고래 고기 유통 투명화 방안 및 불법 포획 근절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이 불법 포획 고래 유통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자료 공유를 할 예정임
- 또한 학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끝.

[별첨] 2회 세미나 구체적 세부일정

장소 시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
2018. 10. 11.(목) 13:00 ~ 14:30	<p><Session 1> 주제발표 및 토론 후 질의응답 주제 : 고래류 유통 구조 투명화 방안(고래류 DNA 채집 및 감정 개선방안)</p> <p>▷ 발표자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박사</p> <p>▫ 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 연구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혜경 연구원 - 학계 의견 관련,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 신만균 교수 - 고래 유통 및 판매 관련,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 윤태경 조합원 <p>▫ 진행자 : 울산지검 형사1부장</p>
14:30 ~ 14:40	휴식
14:40 ~ 16:10	<p><Session 2> 주제발표 및 토론 후 질의응답 주제 : 불법 포획 고래류 유통방지 대책</p> <p>▷ 발표자 : 울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종주 경사</p> <p>▫ 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 단속 관련, 울산지방검찰청 김대근 검사 - 불법 조업 관련, 동해어업관리단 정윤혁 어업감독 계장 - 시민단체 의견 관련,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 - 행정상 제제 관련, 울산시청 해양수산과 조평래 주무관 <p>▫ 진행자 : 울산지검 형사1부장</p>
16:10 ~ 16:20	휴식
16:20 ~ 17:50	<p><Session 3> 주제발표 및 토론 후 질의응답 주제 : 고래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방안</p> <p>▷ 발표자 : 울산지방검찰청 홍보과 검사</p> <p>▫ 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래 고시 관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서민혜 사무관 - 고래 정책 연구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박사 <p>▫ 진행자 : 울산지검 형사1부장</p>
17:50 ~ 18:20	<p>폐회식</p> <p>▷ 폐회사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이채성 소장</p>